자동차에 관한 문법2

노선이 생명인 버스에서
좌측과 우측좌석을
좌익과 우익이라고 생각해보자.
(여천 역시 원래 프랑스 의회 좌석에서 유래되었잖는가.)

모던 급진적으로 왼쪽으로 쏠리던지
반동을 참으며 오른쪽에 붙어있던지간에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 법은 없지.
핸수진 일도 없는 사람들끼리
죽어라고 눈 한번 주지 않으니
서서는 기어이 등과 등만 마주보게 되지.

혹시 훔쳐보는지 몰라.
왼팔과 오른팔이 바뀐 서로의 모습이 창에 비추니까
힐끗 곁눈질로
왼등이었어, 나와 다르군
말하지 않아도 말은 이미 끝났을지도 모르지.
죽음 다음으로 확실한 말은 침묵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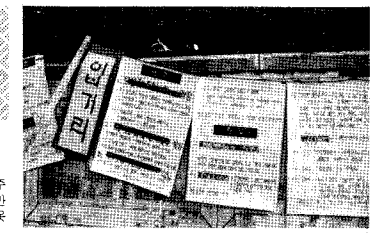
매신 안내방송이 편안한 침묵 사이를 채워주지.
등과 등을 어루만지며 저 끝에서 이 끝으로 달리지.
달려댈 뿐이지.

나는 타고 싶지 않았어.
그러나 끝내는 버스를 놓치지 못해.

강 영 식 〈대학원석사2기·국문학〉

자주적 문화 풍토 배양의 밑거름

문화특집 '생활문화운동'의 위상과 현상황 점검 〈下〉



◇ 입거리에 대한 홍보 대자보

지난 8월 개강 이후 수원캠퍼스에서는 총학생회 산하 생활문화부의 주도하에 다양한 소모임 건설을 통한 자주적 문화풍토 배양을 위해 '생활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8월에 각 단대 문화부 연석회의를 통해 생활문화운동의 기본자료가 될 설문조사를 실시, 학생들의 문화의식을 조사하여 선전을 마쳤다.

9월에는 '입거리'를 중심으로, 10월과 11월에는 '먹거리'와 '살림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미 실천단계에 접어들었다.

소모임의 경우 지금까지 문예, 통일, 동아리 전공공부 모임이 주를 이루었던 것에 대해 다양한 학생들의 생활을 담아내기 위해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의식수준과 열의에 차별을 두고 크게 다섯가지로 나누었다.

통일 소모임은 통일문제 연구와 북한 바로 알기 등을, 자주 소모임은 입거리, 먹거리, 살림터, 우리말 알리기 등을, 문예소모임은 풍물패, 감상회, 전시 등을 주제로 하며 그외에 취미·오락 소모임과 전공 소모임이 있다.

또한 일상 실천사업으로 '칠(7)해요'운동을 벌여 월요일엔 인사하기, 화요일엔 참소하기, 대자보 읽기, 수요일은 우리차 마시기, 목요일은 청바지 입지 말기, 금요일은 재활용품 수거하기, 밥 남기지 않기 등의 구체적이고 실천하기 쉬운 일들을 요일 별로 펼쳐 나가고 있다.

◇ 한마음 생이 매고있는 자전거가방인 바람

현재 우리차 마시기는 좋은 반응을 얻어 환경공학과, 유전공학과 학생회실과 학생회실과 '흙사랑' '선불회'의 동아리방에 다실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다실만들기는 앞으로도 계속 과급될 것으로 보인다.

재활용품 수거의 경우 각 단대별 수거의 경우 각 단대 학생회실은 모인 재활용품들로 가득차 있는 실정이며 교직원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또한 '밥 안남기기'를 시작한 후 학생회관 식당에선 학생들이 남기는 음식량이 3분의1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생활문화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반응은 개량한복입기에도 잘 나타나 캠퍼스 곳곳에서 개량한복을 입은 학생들을 볼 수 있다. 보통 개량한복은 1주나 2주에 한번 씩 상설매장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실정인데 웃이 부족해서 못 팔 정도이다.

어느 과에서는 교수님께 개량한복을 선물해 드렸는데 입어보신 교수님께서 '너무 편하다'며 몇 벌을 더 구입하실 정도라고 한다.

물리학과는 수업시간에 이름표 달기를 생활화해나가고 있으며 생활문화부는 과학생회실, 강의실 이름달아주기를 계획하고 있고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자용 함께 타기를 벌이고 있으며 아침에는 교직원과 함께 참소하기 등 생활속에서 많은 내용들을 담아내려 노력하고 있다.

청바지 안 입기의 경우 일부 학생들이 대안 없는 무리한 요구라고 하겠지만 갑자기 바뀌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서히 고쳐 나가려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실상 청바지 입기에 대한 대안은 생활문화연구소에서 제시한 갈물 등인 갈옷을 비롯, 면바지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갈옷의 경우 가격이 약간 비싼데 반해 질기고 편하다고 한다.

수원 캠퍼스의 경우 '생활문화운동'이 타 대학에 비해 시작 초기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그 지리적, 환경적 영향이 강도 하겠지만 그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볼 때 그 지리적, 환경적 영향이 강하다. 소비향락적인 문화가 만연된 서울캠퍼스의 경우 학생회의 일상사업이 주변환경의 영향으로 학생들에게 호응을 잘 얻지 못하는 반면, 캠퍼스타운 약간을 제외한 모든 것이 전원의 풍경을 풍기는 수원 캠퍼스는 모든 일들을 학교내에서 해결해야하는 환경적인 특색이 있다. 이러한 좋은 조건으로 학생들의 관심이 학생회의 사업과 잘 일치되어 좋은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학생회에서 캠퍼스타운에 음악카페가 생기려 하자 이를 전통찻집으로 바꿔 줄 것을 요구해 업주가 현재 검토중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업속에서는 학교측의 협조도 적극 요청되고 있다. 재활용품 수거의 경우 단대 학생회실에 가득찬 물품들의 총학생회에서 수거할 참고가 없어 2달이 되어가도록 한번도 팔지 못했다.

이러한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실상 몇번 학교측에 참고를 하나 마련해 줄 것을 총학생회에서 요구했으나 학교측의 대답은 들을 수가 없었다. 또한 학생들의 복지에 관한 문제는 서점, 목욕탕, 이발소, 미장원, 문방구 등의 필수적 공간마저 확보되지 못한 것에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생활문화운동'이 시작된 지 2달만에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추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의식속에도 '생활문화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학생회의 사업의도가 잘 받아 들여 좋은 결과를 낳고 있는 현실점에서 학생, 교직원간의 상호협조를 통해 건강한 문화를 지켜 나가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

〈김일형 記者〉

'칠해요' 운동 실천생활화 해야

소비향락문화와 동떨어진 독특한 대학문화 창조

캠퍼스 문화인

자신의 몫 찾아 노력할 때 만족느껴

— 합창단 '알디라' 부단장 한경신(조경·91)양을 만나

높은시각 화음을 이루어 내려는 노력이 울려 퍼지는 체육과 학대학 시청각실에서 가을맞이 콘서트 준비에 여념이 없는 알디라 합창단의 한경신(조경·91) 부단장을 만나 보았다.

고교시절, 선생님께서 해주신 '대학은 여러사람을 사귀는 장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는 한양은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고, 혼자 부르는 노래보다는 화음을 이루고 싶었다"고 알디라에 들어오게 된 동기를 밝혔다.

대학 초년 시절, 한양이 무언가를 이루지 못한 허탈감과 동아리에 대한 회의를 품고 있을 때, 어떤 선배가 '알디라가 너를 위해 존재하기 보다는 네가 알디라를 위해 노력하라'는 충고로써 자금의 그를 있게 해 주었다고 이야기 한다.

이에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소속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일단 단체에 가입하면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욕심을 버리는 자세로 자신의 몫을 찾아서 노력할 때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라며 자신의 동아리생활에 대한 신조를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이제는 그 어느 곳보다 알디라 사람과 동아리 밖이 편하다는 한양은 다른 동아리들은 예비역의 참여가 저조한 반면 알디라에는 상당수 예비역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 하며 은연중 알디라의 두터운 정을 자랑스러워 했다.

수원캠퍼스 초창기인 81년, 서울캠퍼스에서 이전되었거나, 연합동아리의 가지가 아닌, 순수창단동아리로서 17단원을 맡았던 알디라에 대한 한양의 자부심은 대단했다.

그동안 9번의 정기연주회를 가졌고, 각종 대회의 수상으로 학교를 빛낸 적도 많았는데, 학교합창단으로 승격되지 못한 채 확보된 연습공간과 풍족한 지원금을 받는 타대학 합창단과는 달리, 열악한 연습시설마저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

오는 7일의 가을맞이 콘서트 이후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전국 대학생 합창 경연대회에 참가할 계획을 가진 알디라는 앞으로 수원·경기지역 타대학 합창단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여 지역사회 일반인들에게 대학문화로서의 합창을 선보이는 공연을 추진해 나가려는 큰 소망을 가지고 있다.

무대에서 노래공연을 할 때만은 연습 때의 힘들었던 것을 모두 잊는다는 한양은 "12년의 긴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정체하거나 안주하는 알디라가 아닌 항상 새롭게 발전하며 선후배간의 어려운 점을 뛰어넘어 함께 고민하는 공간인 알디라를 만들고 싶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맑은 목소리 만큼이나 솔직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는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대학생활이라는 특권을 도전과 가능성의 시기에 생활의 모든 면에서 겁먹거나 주저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매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있을 콘서트에 대해 "바뀌했던 준비기간동안 들였던 노력만큼만 여러 친구들이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라는 한양은 정성껏 만든 포스터 한장을 건네주었다.

〈박경희 記者〉

"항상 새롭게 발전하며 함께 고민하는 공간 만들어야"

신간안내

'그들이 대통령…' 출간

백기완 선생의 "그들이 대통령이 되면 누가 백성 노릇을 할까"가 백산서당에서 출간되었다.

이 책은 백기완 선생이 일생동안 씨름해온 역사의 쟁점, 민중적 쟁점들을 수필 형식의 정서적 방법으로 돌파해온 흔적들이다.

'참사람이란 남을 괴롭히지 않고 자기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자기 생각과 삶을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이다'고 선생자신이 얘기하고 있듯이 언땅을 박차고 혹은 바위를 뚫고, 짓밟힐수록 숫아나지 않고는 못배기는 '새싹이'를 갈망하는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사람을 찾는다', '이거 씨원한 이야기 한번 없습니까' 등이 실려있다.

〈 백산서당刊 값 4천8백원 〉

'황하는 동쪽…' 출간

제3회 모순(茅盾)문학상 수상작인 "황하는 동쪽으로 흐른다"가 전예원에서 출간되었다.

저자인 과달은 중국의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인 회족(모슬렘족)으로서 "홍진"으로 중국 중편소설 우수상을 수상했고 현 중국 소수민족작가협회 부의장으로 있는 여류작가이다. 이 소설은 소수민족으로서의 그의 삶이 투영되어 있는 작품으로 중국 특권층이 살고 있는 어느 모슬렘가족 3대의 60년간에 걸친 파란만장한 숙명적 삶을 그려내고 있다.

〈김주영 역, 전예원刊 상·하 각권 값5천원〉

'아버지와 딸' 출간

두리에서 이광재의 단편소설집 '아버지와 딸'을 펴냈다.

전북 옥구에서 나 전북대 철학과에 재학했던 저자는 이 작품에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구체적으로 공개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투쟁, 사랑, 고뇌를 그려내고 있다. 간접인 아버지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을 살고 있는 '아버지와 딸'은 현대사가 지니는 아픔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외 '태풍의 눈', '소나무', '시림도 명예도' 등 8편의 단편이 실려 있다.

〈두리刊 값5천5백원〉

'이론'지 가을호 출간

현 마르크스주의의 사상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속에서 창간되었던 '이론'지 그 두번째인 가을호가 출간되었다.

이번호의 특집 주제는 '마르크스로 돌아가자'로서 철학, 역사학, 문예이론, 경제학 분야에서 몇개의 중요부분을 발췌하여 현시점에서 마르크스주의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다.

'포스트 모던광고의 상품미학비판'과 '루카치·브레히트 고전적 논쟁'의 논문 두 편도 실렸다.

특히 기획 연재로 마르크스주의 운동의 위기인 현 상황하에서 '새로운 신작'을 선언하며 옛 서독 공산당의 개혁과가 창간한 잡지에 대한 'Z:마르크스주의 경신의 외 잡지'를 담았고 알튀세르 자서전 출간에 초점하여 그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는 글도 실렸다.

〈 값5천원 〉

문화단신

'노래판 굿 꽃다지' 공연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과 한양대학교 총학생회는 오는 10.11일 오후 5시 한양대학교 노천극장에서 '노래판 굿 꽃다지'를 막인배(서울노동자 문화예술단체협의회 대표)씨 연출로 개최한다.

놀이패 '한두레', 극단 '현장', 풍물패 '터울림' 등이 출연하는 이번 공연은 노동법 개정 투쟁에 직면한 단위노조의 모습과 MBC 파업장면을 그린 '지금 우리는', 대선에 있어 민중의 민주 대개혁요구를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를 짐리한 '민중의 소리' 등 모두 여럴바 당을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제2회 민족예술상을 수상한 '꽃다지 1,2,3'을 새롭게 구성, 노래관곡의 정형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내용적으로뿐만 아니라 예술적 측면에서도 매우 수준 높은 한판의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서울노동자 문화예술 단체협의회 831-3426, 3427〉

인간존중의 경영

럭키금성 기업문화 '脫'시리즈-③
럭키화재 국내최초 미국지사 개설편

固·定·觀·念

외국자본 국내진출의 위기를 우리자본 외국진출의 기회로 역전시켰습니다

금융개방 압력에 맞선 한국 보험업계 최초의 미국 진출 — 문단속에 연연하는 우물 범하기 보다는 세계의 금융 심장부에 먼저 뛰어드는 적극적인 자세로 개방시대의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틀에박힌 사고를 버리고 개척의 정신으로 뛰는 젊은 인재들 — 럭키금성의 진취적인 기업문화 속에서 시대의 새로운신화를 창조해가고 있습니다.

국내 보험업계 최초, 미국지사 개설 실무담당

럭키화재 이종욱 과장 —

"외국자본이 늘어온다고 걱정만 해선 됩니까? 우리도 그들의 문을 열게 만들어야 합니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 아닙니까?" 국내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 88년 부터 세계 금융의 중심지 뉴욕에서 미국지사 개설이라는 특수임무를 맡고 활동을 해오던 럭키화재 이종욱 과장 —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는 뉴욕 보험청의 높은 문턱을 넘고 마침내 뉴욕 지사 개설 라이센스를 따내고를 감지스러워(usual) 문단속에만 연연했던 당시엔 가혹 의외의 일격이었지만요" 개방의 압력 앞에있는 화주기업에 맞서 용크러들기 보다는 세계시장의 문을 열고 당당히 어깨를 겨누는 이종욱 과장은 도전과 극복의 지혜를 한 발 앞서 실천하는 패기있는 젊은이이다.

럭키금성